

IT 주력부대 반도체·스마트폰,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① IT산업, 하반기엔 바닥 찍을까

반도체 가격하락 내년까지 전망도 무역분쟁 소강상태는 긍정적 신호

갤럭시노트10·아이폰11 출시 예정 삼성전자, 화웨이로 반사이익 가능성

가전 호황 속 계절적 비수기 과제 디스플레이 8K·OLED 흑자 기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IT 수출 실적을 전년비 15.7%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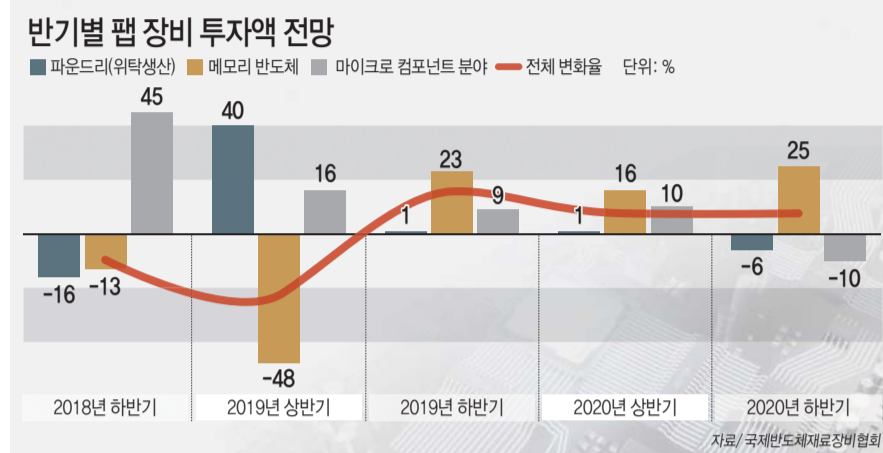
핵심은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반도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국내 경제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안 끝났다?

1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 48G의 평균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3.1달러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8달러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당초 예상됐던 2분기 반등도 없었다.

문제는 가격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점이다. 디램익스체인지가 하반기 D램 가격이 1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다른 시장조사업체들도 내

대한민국 경제가 태풍 속으로 빨려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성장 엔진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이 위기에 내몰렸다. 여기에 정부가 재계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도 어려워졌다. 메트로 경제는 ‘하반기 대한민국 산업 전망’ 기획을 통해 산업계 각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실적을 짚어보며 글로벌 경제 위기 현주소를 확인하고,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온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란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낸드 플래시 128Gb MLC 가격은 최근 4달러를 다소 밑도는 수준에서 머물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극자외선(EUV) 공정으로 이뤄낸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중 무역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위기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무역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겠

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임에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장 침체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전망도 크게 나빠졌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언제 반등이 시작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장 축소에 5G 효과도 기대 어려워

스마트폰 산업은 하반기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실적 전망이 이어지긴 하지만,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시장 확대 등 기회가 열려있기도 하다.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소비자 선택 폭을 크게 넓혔다. 하반기에도 신제품

러시는 이어진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노트10 출시를 예정한 가운데, 애플 아이폰11도 9월 출시설이 피어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에 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유럽과 중동 등에서 높은 수혜를 기대해볼만 하다. 유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6450만대, 화웨이가 4400만대로 샤오미(810만)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시장 성향이 비슷한 중동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시장 축소다. 화웨이가 위축되면서 시장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긴 하겠지만, 길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G 효과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5G 상용화 열기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5G가 뚜렷한 장점을 과시하지 못한 데다가 통신 품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끼칠 영향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전 업계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하반기 어려운 업황을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계절적 비수기를 어떻게 이겨낼지도 과제다.

◆가전,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청신호’

상반기 가전 시장은 상대적으로 호황

이었던다는 평가다. 필수 가전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신개념 가전이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면서다.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전 판매가 대체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흥 시장 침체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반등이 확실시되는 분야다. LCD 시장이 중국으로 세대교체되면서 상반기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8K와 OLED 등 확대도 오랜만에 흑자 전환 기대도 나왔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시장 확고한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부터 애플에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다.

8K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8K TV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올해 올해 34만 5000대로 전년비 807%나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패널 출하량도 지난해 3만 8300대에서 올해 34만 5700대로 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관세 인상 우려는 부정적 요인이다. 당초 업계가 상반기 관세 인상을 대비해 TV 재고를 축적해놓은 상태, 판매량 추이가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김재용·구서윤 기자 juk@metroseoul.co.kr

“반도체·디스플레이주 영향 제한적”... 국내 소재주 반사이익

日 수출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대대상 제외... 90일 심사 거쳐야 자국서도 타격 커 실행 어려울 것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주에 미칠 악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일본 수출 규제를 넘는 호재가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로 1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의 영향은 미미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SK하이닉스는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LG디스플레이 주가는 1.96% 하락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체 단기 타격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이들 품목의 일본 점유율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를,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해 한국 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그동안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해 왔지만 한국을 우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체의 단기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입 중 일본 비중은 2000년 2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핵심소재 및 부품 의존도는 여전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 제조사의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반도체, TV 및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에 필수 소재인 만큼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업체들이 이 품목을 일부 생산할 수 있지만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한다는 점에서 국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업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세 가지 모두 일본의 의존도가 높아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의 단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분석이 많다.

이승우 연구원은 “일본 소재업체에게도 실적 타격을 클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규제가 현실화해도 재고 부담이 큰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감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도체 주가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양재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제조사가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일본업체는 경쟁력 상실로 반사이익도 없고, 국내 제조사와 소재업체도 일본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

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주, 미·중 긴장 완화가 호재

지난달 29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화웨이 거래 제한 완화를 시사한 것은 반도체주에는 일본 악재를 넘는 호재란 분석이 많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 제재보다 무역 갈등 완화를 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전면 수출 금지가 아니고, 일본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대만 외 수요처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조치가 투자심리에 주는 영향은 제한

적”이라고 분석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약화될 경우, 반도체 업체에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화웨이 제재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SK하이닉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로 오�히려 불산 제조업체인 후성과 감광제 제조업체인 동진세미켐 등 국내 소재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식시장에서 후성(전일 대비 9.87%)과 동진세미켐(17.91%) 주가가 급등세를 장을 마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